

도심 속 국립미술관 뉴욕·파리 안 부럽다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외국의 대도시들을 관광하다 보면 종종 부러울 때가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도심 한복판에 국·공립미술관이 있어서다. 대부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미술관들은 시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모마·MoMA)은 맨하탄의 심장부에, 테이트 모던은 런던 템즈 강변에,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의 '센타'에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미술관을 둘러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서울 한복판에 번듯한 국립미술관을 갖게 됐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 덕분이다. 과연 국립현대미술관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외진 곳에 위치한 것과 달리 서울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서울 도심에 동지를 틀었다.

서울관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소격동 부근이다. 바로 옆에 경복궁, 창덕궁이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북촌 한옥마을, 남서쪽으로는 광화문 광장, 남동쪽으로는 인사동 거리와 연결된다. 주변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금호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국제갤러리, 학교재 갤러리 등 내로라하는 미술 인프라들이 밀집해 있다.

사실 서울관은 서울시가 '도심 속 미술관'을 내걸고 오랫동안 공들여 온 야심작이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송파구로 이전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주변의 종친부를 보존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민한 끝에 '서울의 모마'를 생각해냈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뉴욕이나 파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을 도심에 건립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군사정권시절 각종 정보 수집 및 사찰, 민간인 감시, 고문, 간첩단 조작 등 악명이 높았던 기무사 건물(본관)을 보존하기로 한 이유는 한국 최초의 건축가인 박길용(1898-1943)이 설계한 근대문화재(375호)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지난 2009년 서울관 조성계획(총 사업비 2460억 원)을 발표한 후 약 3년 여의 공사를 거쳐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기무사 일대에 부지 2만7264㎡, 전체면적 5만2125㎡,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미술관 전체 전체면적 중 전시 공간은 8개 실로 1만450㎡ 수장공간 3825㎡, 문화·교육공간 4750㎡, 자료·정보공간 2155㎡, 사무공간 2941㎡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서울관은 전통과 역사, 현대가 어우러진 '한지붕 세 가족'의 독특한 스타일이다. 조선시대 국왕들의 친인척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통 한옥인 종친부(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호) 건물과 1913년 일본군 수도육군병원으로 지어져 1970년대 이후 기무사로 사용됐던 붉은 벽돌 건물, 그리고 새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다.

서울관에 들어서면 주출입구인 기무사 건물 앞에 고풍스런 아름드리 고목이 방문객을 맞는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 공간과 뮤지엄숍,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건물 왼쪽 끝 옛 모습을 간직한 계단에서 반원형 창문으로 보는 삼청로 풍경이 매력적이다. 중앙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은 현대식 건축물(맨 왼쪽)과 전통 한옥 양식의 종친부(가운데), 리모델링한 근대적 분위기의 기무사 건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박홍순 작가)



모던한 분위기의 서울관 전시관 내부.



개관전으로 열렸던 설치미술가 서도호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종친부·기무사·새 건물 '하모니' 북촌 한옥마을·광화문 등 인접 주변서 접근 쉬운 '열린 미술관' 개관 100일만에 25만명 방문

도로 뒤로는 종친부 건물의 날렵한 처마 선이 눈길을 끈다. 서울관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서울관은 경복궁 바로 옆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돼 건물 높이를 12m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땅 위로는 최대한 낮 작 얹드리고 지하로 깊이 파고들어가는 형태를 선택했다. 지상에 는 식당, 카페, 아트숍 등 시민들이 즐겨 찾게 될 부대시설을 배치 하고, 전시장은 대부분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전시장의 채광을 위해 건축가는 거대한 빛의 통로를 만들어 자연광을 끌어들었다. 모던한 분위기의 전시관인 서울백스와 전시마당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건물들이 유기적인 하모니를 연출하기까지에는 건축가 민현준의 '군도(群島)형 미술관' 아이디어가 있었다. 현대미술을 위한 미술관이지만 동시에 미술관이 들어선 터의 '과거'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들 사이에 정원과 마당을 꾸며 마치 미술관 시설을 다도해 처럼 분절된 형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관은 주변 도로 4면 어디서든 전시실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마당을 가로질러 누구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방형 미술관이다. 미술관 마당에는 이우환, 알렉산더 칼더, 엄태정, 김승영 등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서울관이 완공되는 데까지는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2010년 종친부의 기단이 발굴되면서 서울관 건립 계획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 2012년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가 하면 종친부 담장 복원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문화재 보호 단계가 담장의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미술계와 인근 주민들은 '열린 미술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 결국, 문화재청은 종친부 뒤쪽인 서울관 동쪽에 2m가 넘는 전통담장을 복원하고 중간 중간 입구를 두기로 결정했다.

서울관이 문을 열면서 옛 기무사 터 일대는 인근의 미술 인프라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랜드마크 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개관전으로 기획한 설치미술가 서도호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최우람의 키네틱 아트 '오페르투스 루돌라 움브라'(라틴어로 '달의 숨겨진 그림자'라는 뜻), 대만작가 리밍 웨이의 '움직이는 정원', 인도작가 아마르 칸와르의 '최상의 숲' 전 등은 동시대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면모를 보여 주었다. 개관 이후 100일 동안 무려 2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중 유료관람객이 9만여 명에 달했다.

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박진현씨(운영지원팀)는 "서울관은 역사적 스토리를 살려 종친부와 기무사 건물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나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처럼 대한민국의 문화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소격동이 국내 방문객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변화가 지역인 만큼 관람객이 미술관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park@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소파 식탁 보신 판매

8월18일까지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